

# 조선 후기 古文의 형식미

沈 慶 昊\*

## 1.

조선 후기 한시문의 사적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고문과 고시가 중심 장르로 상승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한국 한문학의 주체적 전개 및 그 하부의 사회일반의 변화와 관련하여 세밀한 사실 탐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 이후의 문인들은 載道·貫道の 문장론과 문장 형식에 관한 실제 비평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고문의 개념 주위에 모여 있다. 이때 고문의 개념은 반드시 명확하지만은 아니하여, 명의 擬古派(前後七子)의 擬古文과 대별하여 ‘경전에 근원을 둔 문장’, ‘義理의 문장’(李植 ‘作文模範’)으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된 채로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경전에 근원을 둔다고 하여도, 주자학을 존중한 학자—문인들은 六經보다도 四書를 중시하였고, 실용학을 중시한 학자는 六經과 四書를 동시에 문장의 근원으로 보는 등, ‘경전’의 내용도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러한 대립은 金邁淳과 丁若鏞의 예에서

\* 국어국문학과 강사

- 1) 조선 후기 고문 및 고문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 논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崔信浩, 「淵泉 洪奭周의 文學觀」(東洋學 1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3)

金都鍊, 「古文의 文體 研究」(韓國學論叢 6, 국민대학교, 1984)

金喆凡, 「19世紀 古文家의 文學理論에 대한 一考察——臺山の 경우——」(成均漢文學研究 21, 성균관대학교 한국한문학교실, 1986)

金明昊, 「朴趾源과 俞漢蓀」(韓國學報 44, 一志社, 1986. 가을)

윤고, 「崔岬의 〈文章之文〉論과 古文詞」(震檀學報 65, 震檀學會, 1988. 6.).

잘 드러난다.<sup>2)</sup> 더구나, 고문가라 자처한 朴趾源의 문론에서는 ‘경전에 근원을 둔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된다. 마치 청의 袁枚가 六經과 道統에 대해 회의론 폼엇듯이, 朴趾源도 고문을 경전에 연결시키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면서도, 袁枚가 ‘一切綺語·駢語·理學語·二氏語·尺牘詞賦語·注疏考據語, 俱不可以相侵’(‘與孫備之秀才書’)이라 하여 고문의 범위를 제한한 것과는 달리, 朴趾源의 문장은 綺語·駢語 등을 과감히 채용하여 고문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기세이다.

李宜顯(陶谷集 “陶峽叢說”)에 따르면, 조선의 평탄하기 짝이 없는 문장을 바꾸어 고문을 창도한 인물은 崔崧이다. 하지만, 이미 고려 중엽 이후 사대부들은 공용문 제작을 제외한 일상 문필 활동에서 고문을 채용하였으며, 金澤榮의 “麗韓九家文”이 선하였듯이 金富軾과 李齊賢의 문장은 고문의 명문장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17세기 이후에야 고문이 문장론의 주요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기묘하게 여겨질지 모르겠다.

조선후기의 문장론에서 고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있다는 점과, 더구나 고문이 문장론의 중심 개념으로 되는 것이 17세기 이후라는 점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는가. 이 두 가지는 실은, 고문이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형성된 장르란 사실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그 두 가지는 17세기 이후 고문이 한국 한문학의 중심 장르로 상승하는 데서 말미암으며, 거꾸로, 17세기 이후 고문 장르가 상승하였다는 사실이 그 두 가지를 통하여 입증된다.

고문가로 자처한 예는 許筠이 처음인 듯하다. 그는 ‘文說’(“厘所覆瓿藥”)에서, 擬古의 수법을 중시하는 고문에 대항하여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고문 형식론을 전개하였다. 이에 비하여 최립은 스스로 고문가라 하지는 않았고, 또 주로 공용문을 짓는데 바빴다. 하지만 그의 ‘文章之文’論(‘贈吳秀才媛序’)은 도학가들 혹은 사이비 도학가들에 의하여 경시되어 온 문장학의 가치를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sup>3)</sup> 그의 의고적 고문은 공용문에서 형식미를 추구함으로써 생겨난 독특한 문체

2) 六經보다 四書를 우위에 두는 것은 주희 및 주자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으로, 선조초에 柳希春이 經書 諺解를 전담하게 되었을 때 四書의 諺解를 우선착수하려 한 것도 좋은 예이다.

3) 앞서 든 출고, 참고.

이다. 허균과 최립이 각기 달리 고문의 형식을 연마하고 있던 시기는 尹根壽가 명의 의고파의 문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던 때이며, 최립과 윤근수는 함께 韓愈文에 언해현토하는 등 서로 관련이 깊다. 따라서 허균, 최립과 의고파와의 관계는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문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는 것은 명의 의고파를 비판한 고문론이 수용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는 듯하다. 특히 茅坤의 “唐宋八大家文抄”가 유포되어 ‘唐宋八家文’이란 용어도 이때 정착된다. 八家라는 말은 眞德秀의 “讀書記”에도 보여 이미 송대에 그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四庫提要”가 지적하듯 명초의 朱右나 그 뒤의 唐荆川도 8가의 선집을 만들었지만, 8가에 대한 평가가 고정되는 것은 역시 모곤의 “팔대가문초”에서다. 조선후기의 문인이 “팔대가문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예는 金昌協이 처음으로, 이후 그에 대한 정조의 策問이 있을 만큼 “팔대가문초”는 중시된다. 또, 조선후기 고문론의 이론적 근거로는 모곤의 의고문 비판론과 함께 명말청초의 錢謙益의 문론이 적극 수용되었는데, 역시 김창협이 錢의 문론을 소개하고 있다. 대체로, 김창협을 전후한 문장가들이 모곤과 천겸익의 이론을 처음 수용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2.

여기서 말하는 ‘고문’이란 중국 시민사회의 발흥을 배경으로 하여 陳隋이래의 駢儷文을 지양하고 형성된 唐宋古文, 혹은 그것을 모범으로 하는 문체를 말한다. 이의현은 이를 의고문과 구별하여 ‘韓歐正派’라고 불렀다. 이 당송고문은 경전에 근원을 두고 도통을 밝힌다는 내용면과 함께, 음조에 대한 고려와 서술 대상의 초점 부각이라는 형식면을 아울러 중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재 경험 전부가 고문의 문학적 제재일수 있어서, 위의 내용면의 규정은 그다지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오히려 고문은 발흥하는 시민 계급의 발달한 생활상을 배경으로 형식면의 다양한 실험을 시도한 데 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문이 실재 경험을 제재로 하여 허구를 배제하면서도 산문문학의 중요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실재 경험을 서술하는 방법 그것이 문학적

을 먼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곧, 음조에 대한 고려와 서술 대상의 초점 부각이 고문의 문학성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다만, 고문의 예술성을 그 서술 방법에서 찾을 때에는 몇가지 유보가 따른다. 1) 제재가 되는 실재 경험의 성격과 내용이 서술 방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문의 비평에서 제재가 무시될 수 없다. 2) 고문의 음조와 서술 대상의 초점 부각은 일정한 규준이 창작활동 이전에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활동에서 늘 구래의 형식이 지양되므로, 실제 비평에서는 세련된 감식력이 요구된다.

조선후기의 고문론도 표면적으로는 경전에 근원을 두고 도통을 밝힐 것을 주장하는 載道論이나 혹은 문장은 모두 道를 담지 않는 법이 없다고 보는 貫道論의 형태로 나타나되, 당파와 유파와 기질의 차이에 따라 시비가 많다. 그러나 고문의 창작정신은 결국 제재와 서술 방법에 따라 깊이와 높이를 달리하게 된다. 더우기, 제재가 되는 실재 경험의 내용은, 고문 창작자들의 계층적 한계 때문에 유사해지기 쉬운 한편, 동일제재에 대한 서술 방법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져 나타난다. 이때 서술 방법에 관한 논의는 ‘簡’에 집중되어 있다. 李宜顯은 “陶然叢說” (“陶谷集” 권 28)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글(文)에는 평순하고 특 트임을 으뜸으로 삼는 것이 있고, 간이하고 그윽함을 주로 삼는 것이 있으나, 요컨대, 백락이 문드러지지 않고 서술에 법도가 있어 모두가 다 문장의 법규에 맞으면 그만이니, 정녕 한쪽 격식만을 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근래에 문을 논하는 자들은 곧장 ‘簡’한 글자를 두고 말하여, 句字가 짧고 난삽하게 하려 애쓰니, ‘簡’의 뜻을 어찌 句字에서만 찾을 것인가. 편법과 장법이 모두 그러하지 않음이 없다. 만약 구는 간결하되 말이 지리하다면, 그 간결함을 어찌 높이치겠는가. 맥락이 서로 어긋나고 서술이 정연하지 않다면, 그 간결함을 어찌 높이치겠는가. 명의 문인들을 예로 보자. 명의 문인들은 특하면 先秦의 글을 인용하여 구법을 간이하고 그윽하게 하려 애쓰지만, 서사는 번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자들은 구양수와 증공을 깔보았지만, 사실은 구양수와 증공의 서사는 아주 간이하여, 명의 문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명의 문인들은 재주와 학력이 뛰어나 뒷 사람이 견줄 수 없어도 이와 같거늘, 그 밖의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sup>4)</sup>

세인들은 자구의 간결함을 추구하여 ‘而’나 ‘之’와 같은 助字(連結詞)를 쓰지 않는다고 이의현은 지적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이의현 그 자신도 ‘簡’을 고문의 본령으로 보고 있되 다만 자구의 면에서만 간결함을 추구하여 난삽한 어구를 만드는 일을 경계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이 ‘簡’은 고문의 편법, 장법에서 서술 대상의 초점을 부각시키는 때에 이루어질 미학성을 가리킨다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점에서 이의현의 논술은 납득이 가는 바가 있다.

서술 대상의 초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소하고 번다한 것들을 서술하지 않는 ‘簡’의 미학성은 이의현 등 고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에 비하여, 고문이 음조를 중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조선후기의 문론에서 뚜렷이 언급된 것이 없다. 오직 허균의 ‘文說’이 고문의 篇·章·字의 쓰임에 관하여 논한 부분에서 音調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을 뿐이다.

1) 篇에는 한가지 주제로 죽 내려가는 것(一意直下者), 얼키설키 연결되는 것(鈎連筌鑰者), 절절이 새로운 것(節節而生情者), 늘어놓되 기발한 말로 맺는 것(鋪叙而用命語結者), 자잘자잘하되 법도가 있는 것(委曲繁瑣而法者)이 있다.

2) 章에는 골자가 있어 어지럽지 않은 것(井井不紊者)이 있고, 엷히 되 잡되지 않은 것(錯落而不雜者)이 있고, 끊어질 듯하면서 앞을 이어 뒤로 맺는 것(若斷而承前繼後者)이 있고, 아주 짧은 것(極短者)이 있고, 채 다 말하지 않는 것(說不了者)이 있다.

3) 글자에는 울려나는 곳(響處), 숨는 곳(伏處), 수습하는 곳(收拾處), 겹치되 어지럽지 않은 곳(疊而不亂處), 힘주되 애쓰지 않는 곳(強

4) 文有以平暢爲長者, 亦有以簡奧爲主者. 要之, 脈絡不紊, 叙致有法, 俱合於文章規度, 則斯已矣. 正不必偏主一格也. 近來稱文者, 輒以簡之一字爲言, 句字務爲短澁. 簡之爲言, 豈但以句字求之哉. 篇法, 章法, 無不皆然. 若簡其句而冗其語, 則何貴簡. 脈絡相戾, 叙致不整, 則何貴其簡. 姑以明人證之. 明人動引先秦, 務欲簡奧其句法, 而叙事則極其繁蕪. 彼固下視歐曾, 而實則歐曾叙事甚簡, 大勝於明人. 明人才力之雄, 固非後人之比, 而猶且如此, 況其他乎.

5) 陶谷集 권 28, “陶峽叢說”.

而不努處), 끌되 힘을 주지 않는 곳(引而不備力處), 열고 닫는 곳(開闔處), 부르고 응답하는 곳(呼喚處)이 있다.<sup>6)</sup>

허균은 篇·章·字의 쓰임을 의미상의 호응과 연결이란 점에서 중시 하였지만, 음조도 아울러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주희(“朱子語類” 권 31)가 韓愈와 蘇洵의 문장을 두고 고인의 聲響을 배웠다고 지적한 예가 있듯이 고문의 음조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阮元(“擘經室續三集”)은, 성향이란 구말의 脚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章句 안의 音韻이 宮羽를 지킴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때 音韻의 宮羽란 聲調의 음악적 배열을 가리킨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字句의 輕重, 緩急, 抑揚, 頓挫에 따른 文勢를 가리킨다고 봄이 옳겠다. 輕重이란, 윗구를 가볍게 아래구를 무겁게 연결하여, 한가지 사실을 많은 구들로 서술해 갈 때 반드시 짧은 구에서 긴 구로 옮겨감을 말한다. 唐庚의 “文錄”에 설이 있다. 또 呂祖謙(“古文關鍵”)이 말하듯 구의 형태를 가지런히 하는 부분(數行齊行處)과 가지런히 하지 않는 부분(數行不齊行處)을 엮어두는 것도 이것과 관련 있다. 緩急은 글뜻의 자연스러움을 해하지 않으면서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의 인품과 사건의 형세를 모사해내는 방법이다. 陳騫의 “文則”에 설이 있다. 抑揚은 한 인물 혹은 한 사건을 논의함에 있어 먼저 과실을 들고 그것을 누른 뒤 공적을 추켜 드는 방법이다. 수사법에서 말하는 억양법이 이것이되, 다만, 문장의 기운과 어세에 억양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조에도 억양이 있게 되므로 억양을 음조와 관련시켜 중시하는 것이다. 晉漢 때의 문인들은 이미 이 억양을 음조와 관련시켜 논하여, “初學記”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여럿 수록되어 진한다. 頓挫는 억양과 連語로 쓰이는 등 억양과 같은 의미로도 쓰이나, 억양이 한 인물 한 사건의 서술에서 나타나는데 비하여 돈좌는 문장의 轉折에서 어구 위에 나타나는 점이 다르다. 陳繹曾과 王世貞의 설이 참고된다.

이제까지 고문의 형식미를 음조와 간결성이란 특징 속에서 찾아 보았다. 다음에, 조선후기의 고문에서 이러한 형식미가 어떻게 추구되었나 실제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6) 惺所覆韻彙 권 12, ‘文說’

## 3.

한문 산문의 문체를 분류하려 보면 표현형식, 내용, 목적관점 등의 기준이 서로 얽혀, 문체의 이름조차 확실히 구별할 수 없는 때가 많다. 지금, 청의 姚鼐의 “古文辭類纂”의 예에 따라, 산문을 論辨, 序跋, 奏議, 書說, 贈序, 詔令, 傳狀, 碑誌, 雜記, 箴銘, 頌贊, 辭賦, 哀祭의 13류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때 奏議와 詔令 등의 功用文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사대부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문체들이다. 하지만 崔崐이 ‘文章之文’을 주장하여 문장 그 자체의 가치를 공인받고자 하였을 때에는 아직 이들 문체보다도 奏議와 詔令 등에 비중이 더 실려 있었다. 자율적인 산문의 영역은 여전히 좁았다. 산문의 자율적 가치는 그것을 향유하는 작가—독자층이 널리 형성될 때 비로서 공인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사대부들 가운데는 詞命文의 제작을 承政院, 弘文館, 藝文館의 직무로서 제한해 두고 그 바깥에서 문예활동의 자율성을 추구한 예도 없지 않다. 하지만, 모든 문체에 두루 통하는 館閣體가 시문의 정점에 놓여 있었고, 문인들은 ‘華國之文’의 요건을 배격할 수가 없었으며, 詞命文의 제작에 주의를 쏟아 예술적 문장을 교환하고 감상할 기회를 그다지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崔崐이 詞命文에서 문장 자체의 미학을 추구한 같은 시기에, 허균은 동호인들에게 시문을 비평받고 있는데, 이로써 예술비평의 자율적 영역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시문집의 간행이 활발해지자 詩文 비평도 더욱 활발해지고 산문문체 가운데 특히 序跋類가 증가하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문인의 문집을 영리 때문에 간행하는 일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문집은 문중의 사업으로 혹은 조정의 계획에 따라 간행되는 것이 보통으로, 17세기 이후에는 특히 유집의 간행이 활발해진다. 이 사실을 두고 張維는 ‘南窓雜稿序’ (“谿谷集” 권 7)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풍속은 뒤떨어져, 신기한 일을 좇는 일이 적어, 문인들의 작품이 인채되어 세상에 전하는 것이 드물다. 근년에 문학을 숭상하고 글 좀 쓴다고 하는 자들의 유집이 다투어 나와, 한창이라 하겠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반드시 유집이 나와야 할 그런 인물들인 것만은 아니다. 대체로 집안이 일어나 후손이 뛰어나면, 속된 가요와 같은 것들도 훌륭한 시문들 속에 섞여 들 수가 있어, 눈깜짝할 사이에 나무에 재앙을 가져오고 종이를 귀하게 만든다. 그에 비해 궁한 가문의 사람은 웅대한 포부를 지니고 아름다운 재주를 품고 있더라도 죽고나면 연기처럼 스러져 버리고 만다. 이 때문에 楊峻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니 죽으면 가을풀과 같으려니 하고 탄식하였고, 劉歆은 揚雄에게 太玄과 法言은 권세있는 자들이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는 장독 덮는 데나 쓰일 것이라고 조롱하였는데, 이 고사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의 遺集 간행 풍조에도 역시 들어맞는 말이다.<sup>7)</sup>

장유는 가문을 수식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유집을 간행해내는 사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유집의 간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序跋類의 제작도 많아지는 등, 유집 간행의 붐은 고문의 제작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손들은 현달하게 되면 조상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장식하기 위하여, 가계본되어 있던 문집이나 시문을 적어둔 종이 조각을 책상자에서 끄집어 내고, 편지 등은 副本이 없으면 수신인의 집안이라도 청해 구하여, 재산을 들여서 목판으로 찍어낸다. 당시는 방각본이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지방 관청의 간각 기술을 빌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서발류는 문집 간행의 경위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가 자신의 문학론을 함께 피로하는 문체이다. 장유의 서발류 가운데 ‘芝川集序’(“緩谷集” 권 6)는 黃廷彥의 시문을 평하면서, 자신의 인생론, 문명론도 함께 개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황정욱은 명종조에 문과 급제하였으나 빛을 보지 못하다가 선조 17년(1584)에 宗系辨誣奏請使로서 首功을 인정받아 공신첩에 오른 뒤, 鄭士龍의 추대로 대제학이 되었다. 하지만 임진란 때 順和君과 臨海君을 호종하여 관북지방으로 피난하였다가 회령

7) 我東俗惟，鮮好事，文人述作，罕有錄行於世者。近歲稍稱右文操觚家，競出遺集，可謂盛矣。然徐而察之，未必皆其人也。蓋其家世隆顯，胤胄趾美，則雖折楊皇芻，亦可以混響韶齔。咄嗟之頃，能令木災而紙貴。即窮途冷族，雖懷雲夢之富，溫隨之璫，沒世之後，旋就煙滅。是以孝標興秋草之感，子駿有醬瓶之讎，雖關世情理，亦宜爾。



士民의 반란으로 왜적에게 붙잡혀 부산에 억류되고, 석방 후 탄핵되어 吉州에 유배되었다. 그의 耨英社를 만든 인연도 있어 尹根壽는 그의 복권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실되고 남은 시문은 광해군 4년의 옥사로 가택 수색을 받을 때 모두 압수되어 궁중으로 들어갔다. 이후 휴지 더미로 버려질 그 시문을 우연히 황정옥의 사위가 구입하게 되었고, 인조 반정 이후 황정옥이 복권에 따라, 외손자인 李厚源이 문집을 간행하기에 이른다. 장유는 황정옥의 시풍을 시인의 일생과 사후 복권 및 문집 간행의 우여곡절과 관련시켜 논하는 특이한 시점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에 ‘芝川集序’를 몇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維少也，頗聞藝苑餘論，其稱近代名家詩，必曰「湖蘇芝」。湖謂湖陰鄭公，蘇謂蘇齋盧公，而芝川者，長溪黃公號也。及長，獲睹三家詩，湖之組織精緻，蘇之氣格雄拔，篇什之富，蔚然爲大集。而芝川稿近體未滿二百首，古選歌行無傳焉。何其寥落也。然讀之橫逸奇偉，名章雋句，磊磊驚人。即其獨造之境，眞可與二家相角。子美(愚按，遺興詩中有此語)所謂「賦詩何必多」者，不其然歟。

장유가 장성하여 보았다는 “芝川稿”는 선조말 광해군초에 趙持世가 황정옥의 근체시 백여편을 모았던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 “지천고”에 대하여는 허균의 ‘題黃芝川詩卷序’ (“惺所覆韻藻” 권 5)가 참고된다. 장유는 정사룡의 시를 ‘組織精緻’, 노수신의 시를 ‘氣格雄拔’이라 평하여, 전자는 ‘法’, 후자는 ‘氣’가 뛰어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황정옥의 시를 ‘橫逸奇偉’라고 평하는 것은, 그의 시가 法과 氣에서는 두사람보다 뒤지나 辭句가 警拔하다고 평가한 것이라 하겠다. 장유는 ‘簡易集序’ (“溪谷集” 권 6)에서, 최립의 문장이 金守溫과 金宗直의 문장에 비해 전자보다는 氣가 후자보다는 理가 뒤떨어진다고 분명히 논한 적이 있는데, 황정옥에 대하여도 날카로운 비평 언어를 결코 유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公以高才選學，早擅大名，中年頗與世塗抹。晚年被宣廟知眷，奉奏帝庭，快雪霜系百年之誣，遂策元勳，進爵極品，提衡文柄，爲一代詞林宗匠。壬辰之變，酷遭奇禍，仍爲脩郡者所甘心，以危法文致之，奪爵遷謫，抱枉未伸而沒。

이 단락은 황정옥의 일생을 간결히 서술하면서 시인의 성격을 암시

하여 그것을 시풍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황정옥은 국가 원훈에다 문명을 잡을 만큼 재능과 학식이 뛰어난 인물이다. 그러나, 임진란의奇禍에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어 죽었다. 그는 人德을 쌓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의 인생의 浮沈과 성격상의 결함은 그의 '橫逸奇偉'한 시풍과 관련이 있지 아니한가, 하고 장유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3] 生平著述放散殆盡。胤子承旨公哀集成編，藏之巾衍，世無別本。及壬子之獄，承旨公遭誣被逮，家藏文籍悉搜入禁中，隻字片紙，無復存者久之。中貴人從內裏得故紙數束，以畀人，將充糊塗之用。芝川稿適在其中。或有識公名者偶見而認之，以告公之甥李判官。遂用重價得以錄之。至今士常了，既命復公官封，而外孫李厚源即判官之子也。爲丹陽守，取公遺稿。授劄副，而以行狀及諸公所爲公文若詩者附刻焉。

가문이 영락함에 따라 시문은 잊혀지고, 종당에는 휴지로 화하고 만다. 그러나 운 좋게 사들여져, 이제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복권되었으므로 行狀을 붙여 伸冤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도 다투어 시문을 써주었다. 그의 시문도, 그 인물이 그러하였듯이, 기이한 浮沈을 겪었던 것이다.

[4] 旣成，請弁卷之文。繼謂，文章大業也。其得之也旣不易，其傳之也亦不偶。若是集者，育必不可泯之實，遭必不得全之變。旣失而幸得之，將晦而竟顯焉，殆若有物陰相之者。吁亦異哉。公於文存稿尤夥。然都堂一書，筆力縱橫。一鬮足識全鼎，染指者當自知之。是爲序。

황정옥의 시문은 수준이 높으니 스러질 리가 없다. 그러나 전부를 다 보전할 수는 없는 운명이다. 그것은 그의 시문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가. 문은 남은 것이 더욱 적다. 하지만 비변사에서 쓴 글을 한번 읽어 보는 것만으로도 필력이 종횡으로 분방하여 그의 시와 통하는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유는 황정옥의 '橫逸奇偉'한 시풍을 그와 그의 시문의 기구한 운명과 결부시켜 논하였다.

현전하는 “芝川集”은 제 1권에 5언절구 6수, 7언절구 75수, 5언율시 28수, 제 2권에 7언율시 84수, 7언배율 1수를 수록하고 있으며, 행장 등을 부록으로 하고 있고, 장유의 序는 인조 10년(1632)의 작

으로 되어 있다.

장유의 ‘芝川集序’를 허균의 ‘題黃芝川詩卷序’와 비교해 보면 그 문체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난다. 허균은 湖蘇芝 3인이 중국에 났더라면 李夢陽, 李攀龍, 王世貞에 비길 만하다고 격찬하되, 장유처럼 그들의 시풍을 평어로 분석해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허균은 센티멘탈리즘의 시선으로 3인을 바라보고 있으며, 시인의 생애와 시문과의 함수관계를 탐색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는 ‘文說’에서 스스로의 고문에 대하여 평하였듯이, 法과 辭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내키는 대로 써내려가는 고문을 이 ‘題黃芝川詩卷序’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에 비하여 장유의 ‘芝川集序’는, 南公轍(“金陵集”)이 그의 古文에 대해 평하였듯이, 처음에는 열은 것 같으나 다시 점점 멀어지고 서서히 빙 둘러가는 느낌(‘即之如淺, 復而彌遠, 紆餘縈洄, 如江河千里一碧, 又魚龍鮑鱸之容與也’)을 준다고 하겠다.

조선후기의 서발류는 고문론을 피로하면서, 평론의 대상이 되는 시문을 고문의 정맥에 맞다고 고평해 주는 일이 많다. 의리의 문을 고문의 정맥으로 본 李植도 서발류에서 자신의 문학론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頤菴集後叙’(“澤堂集” 권 9)는 좌진, 국어, 사기, 한서를 모방하는 의고파와 인의도덕을 근본으로 하는 도학자를 대립시켜 양자를 극복 지양하는 위치에 진정한 고문을 자리매김해 두고 있다. 앞부분만 들어 보자.

[1] 世之談藝者必曰, 「文章當法古。」問其所謂古者, 則左國世馬之書也. 有難之者曰, 「古今無二道, 文章當務本。」問其所謂本者, 則仁義道德之實也. 以余觀之, 仁義不容虛立, 古文莫尚六經者. 果能從事詩書孔孟之說而有得焉, 則其謂之古·謂之本者, 夫豈外於此哉. 國朝前輩作者, 於文章可謂盛矣. 其爲學, 非不旁採百氏. 顧所宗主者, 不出乎詩書孔孟之說. 故其文有質有華, 不協乎正者蓋鮮. 近年以來文體遽變. 末學後生稍窺秦漢數十卷文字, 則視經訓如司空城朝書. 其言曰, 「視古修辭, 寧失諸理。」噫, 其文之靡而道之喪乎.

이식은, 의고파는 고문이 6경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모르고, 도학자들은 도가 문장을 통하여 비로서 성립함을 모른다고 비난한다. 특히 의고파는 경전을 마치 형무관의 죄인 부역자에 관한 율령서를 보듯 멀리 한다고, 사기 韓固生傳에 있는 고사를 끌어다 비판하였다(城旦을 城朝

로 쓰는 것은 이성계의 諱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식은 ‘明白簡潔’, ‘深靖閑雅’한 문장을 고문의 풍격으로 보고, 宋寅의 시문에서 그 전형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故疆城君頤菴宋先生, 即吾所謂前輩作者之一也, 先生天資英秀, 學問醇篤. 雖遊於詞藝, 而不專用工, 聊以寓意而已. 其所出詩文, 明白簡潔, 深靖閑雅. 談理鋪事, 而不流於卑俗. 寫景抒懷, 而不鶻於浮艷. 此豈非有德之言, 治世之音哉. 而視彼割裂以爲奇, 鉤棘以爲深者, 未知孰爲古耶.

고문론자들은 맹자 萬章下の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可乎’에 보이는 소박 반영론의 연장에서, 시문은 작가의 덕성을 담고 있어 시문을 보면 곧 그 인물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의고문은 수식을 일삼기 때문에 시문을 읽어도 그 인물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식의 ‘頤菴集後叙’도 같은 논리를 전개하여 끝을 맺고 있다.

[3] 噫, 誦其詩, 讀其書, 不知其人可乎. 後之欲習先生之文, 追先生之志者, 幸以余所僭論者求之, 則未必不爲私淑之一助也.

장유의 ‘芝川集序’가 문학론의 직접 서술보다도 시문과 인생과의 함수관계를 상징적으로 제시한데 비하여, 이식의 ‘頤菴集後叙’는 문학론을 직접 서술한 뒤 고인의 시문을 통해 그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는 수법을 썼다. 어느 경우에도 스스로의 문학과, 비평대상자의 약력 문집 간행의 경위 등을 빠뜨리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小品體를 배웠다고 하는 李家煥의 서발류 가운데는 이러한 서술 요건을 무시하고 警拔함을 추구한 글들이 눈에 띈다. 婢妾의 몸에서 난 위항문인인 李寬佃의 문집에 붙인 ‘題霞思稿’ (“數數集”)는, 시문을 직접 평하지 않고 두 奇話를 통하여 이단전의 시문에 ‘出思慮之外者’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老人無事, 使坐客說平生奇觀異聞而聽之. 一客云, 「某年多暖如春, 忽風作雪下. 入夜霽止, 虹飲于井. 村人驚起噪焉.」一客云, 「曩有行脚僧, 言, 『曾入深岐, 遇一獸, 虎軀綠毛, 角而肉翅, 聲如嬰兒.』」余謂, 「是近謊說, 不可信.」翌朝有一少年子來謁, 以詩爲贄. 問其姓名. 曰, 「李寬佃.」已訝其異乎人之命名. 及開卷, 光怪陸離難狀, 有出思慮之外者, 始信二客之說非謊也.

첫번째 기이담은, 이단전의 시문이 옹혼하면서 일면 찬란한 색채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두번째 기이담은 외관은 기괴하고 맹렬하지만 속은 아직 여물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도 하다.

## 4.

사대부의 문필생활에서 수요가 많은 문체 가운데 하나가 碑誌類이다. 碑誌란 죽은 사람의 인척이나 후손, 혹은 문인의 부탁을 받고, 죽은 이의 공덕을 찬양하고 애도하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글로, 보수를 받고 짓는 일이 많다. 비지류에는 묘 위에 세우는 碑와 表, 파묻는 誌가 있는데, 본래는 銘이 중심이 되어야 할 墓誌銘과 墓碣銘도 그 序의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역시 비지류의 산문으로서 간주해 볼 수 있다. 결국, 呂祖謙의 “宋文鑑”이 비문, 묘지, 묘표, 신도비, 신도비명으로 분류한 것이 모두 비지류에 속하며, 徐居正의 “東文選”이 비명과 비지로 구분한 것이 다 이 비지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선의 비지류는 한유의 문장을 모범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나, 후기에는 구양수와 錢謙益의 비지류를 모범으로 한 것도 많다. 또, 이의현의 ‘善山府使權公墓碣銘’이 왕안석의 ‘度支郎中葛誌銘’을 모범으로 하였듯이 기타 八家 명문도 모범이 되었다.

조선후기의 고문가 가운데 비지류에 개별 주의를 쏟은 문인은 김창협이다. 김창협은 숙종 17년(1691)에서 숙종 30년(1704)까지의 비망기인 ‘雜識(外)’(“農巖集” 권 34)에서, 한유, 유종원, 구양수, 왕안석, 왕세정, 歸有光, 錢謙益 등 중국 문장가의 비문과 晝寢, 장유 등 조선 문장가의 비문을 비평하고 있다. 그는 碑誌와 史傳의 문체를 구별하여, ‘碑誌와 史傳은 문체가 거의 같지만, 史傳은 該瞻을 주로 하나, 碑誌에 있어서는 오로지 簡嚴을 주로 한다’고 하였다. 김창협은 이처럼 “簡嚴”을 碑誌 문체의 본령으로 보아 史傳의 문체를 따른 明의 碑誌를 비판하였다.

김창협이 남긴 비지류의 문장으로는, “농암집”에 수록된 것을 보면 묘지명 17편(권 27), 신도비명 1편, 묘갈명 3편, 묘표 6편(권 28)이 있다. 남에게서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제작한 것은 보이지 않고, 죽은 자녀, 동생, 인척의 재덕과 비운을 ‘屬辭比事’하여典雅하게 서술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시집가서 얼마 안되어 죽은 딸을 위해 쓴 ‘亡

女吳氏婦墓誌銘’ (“농암집” 권 27)은 ‘簡嚴’한 문체로 센티멘탈리즘을 극복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 글을 몇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首陽吳晉周明仲妻安東金氏，農巖居士女也。以崇禎己未十二月十七日子時生。於是居士以皇考議政公在論籍，退築隱求菴于永平白雲山中以居，而女生焉。故名之曰雲，而配以女德者，所以志也。居士先已有二女。然視女貌甚端，神明內蘊，益愛之。

딸의 이름은 스스로가 은거하고 있던 백운산의 지명에서 ‘雲’, 주역 恒卦六五의 ‘貞，婦人吉’에서 ‘貞’을 따서 지었다. 동생인 昌翁이 지은 김창협(金昌協)의 묘지명에 따르면, 김창협은 1남 5녀(차남은 영아로 죽음)를 두었는데, 吳晉周에게 시집간 딸은 셋째 딸이다. 김창협이 29세 되던 때 부친 壽恒이 칠월에 유배되자 농암은 부친의 명에 따라 다음해 8월 永平 鷹巖에卜築하고 11월에 이주하였다 한다. 3녀의 외모는 단정하고 신명이 쌓여 있는 듯하였다. 이 ‘女貌甚端’과 ‘神明內蘊’은 3녀의 외관과 內質을 가리키는 중심어로, 이하에서 3녀를 ‘女主’로서 부각시키는 것과 호응한다.

[2] 其明年，居士從議政公還京師。九年而遭己巳之禍，復入永平山中。時女年十一矣。始同弟崇謙受書十數板，文理輒通。能自讀朱子綱目，無所礙。日閉戶手卷，兀然潛玩，幾不省寢飯。居士憐而奇之，故不禁曰，「是女性靜而拙，雖識書，無害也。」因略授論語·尚書，亦不竟。然其識解明徹，雖徧讀六藝經傳者，不能絕也。

경신년 3월에 부친이 영의정에 배수되자 김창협은 가족을 데리고 한성으로 돌아왔는데, 이듬해 아들 崇謙이 태어난다. 병인, 정묘년에 걸쳐서, 그는 대사성, 대사간, 승문원부제조 등을 거치게 되나, 시국에 관한 상소가 숙종의 노여움을 사서, 淸風府使로 내치진다. 기사년 2월 부친이 진도로 유배되자 사직을 하였고 4월에 부친이 後命을 받자 장례를 치루고 9월에 다시 鷹巖으로 들어간다. 이 단락에 관련된 이와 같은 당쟁과 가문의 몰락 사실을, 김창협은 ‘其明年，居士從議政公還京師，九年而遭己巳之禍，復入永平山中’이라고만 서술하고, 3녀의 총명함을 서술하는데 주력하였다.

[3] 居士既窮居，崇謙尙幼。其所朝夕左右，從容論古今治亂聖賢言行，以爲閨門之樂者，惟女而已。居六年，國家更化，會吳氏亦來求親，居士遂以女之揚州先墓下，以禮送之。而因居于三洲之上。時則崇謙已長，日駸駸進學。而他學子來請業者日衆，答問講說術術。然每入而不見女在側，輒愴然不樂。其在則未嘗歡如也。庚辰七月十七日，遽因乳疾，先居士死。居士哭之慟。葬之于廣州月谷里乙坐之原，八月十八日也。

김창협이 44세 되던 갑술년에 소론의 환국, 남인의 실각으로 노론의 복권도 이루어져, 그에게도 실직이 제수되거나 사퇴한다. 이때 吳氏 가문에서 親事 이야기가 있었다. 오씨의 斗演은 기사년의 중궁폐출을 극력 간한 인물로 김수항과 같은 노론의 핵심 인물에 속한다. 김창협은 모두인을 위해 '刑曹判書贈領議政謚忠貞公神道碑銘' ("농암집" 권 28)을 남기고 있다. 오진주는 두인의 세번째 처인 黃氏 소생이나, 여기서는 오씨에게 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고, 3녀의 사망과 장례 사실만을 간결히 서술하고, 3녀의 죽음이 주는 충격을 극명하게 부각시켰다. 3녀의 병을 '乳疾'이라 적는 것은 대단히 구체적이다.

[4] 女生質特溫恭慈良，自幼嬉戲於兄弟間，亦鮮有忿色違言，於父母可知也。及嫁，事姑謹，友君子莊而不囁。獨不能便給修飾爲世俗婦女態，姻黨或不知其賢也。伯祖谷雲先生·叔父三淵子每愛號與語，待以女士。一家諸女莫敢望。然群居退遜，壹如無能者，唯斤斤服女事。歸吳氏七年，吳氏之人，未嘗見其一視書。雖明仲亦然。其靜密如此。願嘗私謂兄弟，「使吾得爲男子，無他願。但願結屋深山，皮書百千卷，蕭然老其中，足矣。」及與明仲輒推此意而告之曰，「誠能爲此，吾當耨耕饑，以供子衣食。」又每勸明仲，及時力學，以經術文章自立曰，「沒世而名不稱，君子所疾也。」燕私之言，蓋止此而已。

이 단락은 3녀의 성품을 '女士'의 전형에 맞추어 제시하였는데, 일화의 중첩과 대화문의 삽입으로 문장의 변화를 피하고 있다.

[5] 金氏出高麗太師宣平。左議政文正公諱尙憲·同知中樞府事諱光·領議政諱壽恒，即居士三世。居士名昌協，配延安李氏副提學端相女也。明中皇考諱斗寅，刑曹判書贈領議政忠貞公。祖諱勳，慶尙道觀察使。所孔子曰應大，今六載。

이 단락은 묘지명의 요건인 가계의 기록을 가장 간명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구법의 변환이 두드러진다.

[6] 始女死, 居士即有意銘其墓. 旣而崇謙死, 尋又仲女死, 因以及於大故. 悲哀痛酷, 不復能爲文.

이 간절한 서술은, 그간 작가에게 얼마나 크고 많은 불행이 닥쳤던가 짐작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연보에 따르면, 김창협은 50 세 되던 경신년 7월에 이 3녀를 잃고 9월에 장사지내고 나서 10월에 19세의 외아들도 잃고 말았다. 그는 외아들 崇謙을 마치 제자와도 같이 여겨 서로 唱和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와, 외아들의 사후 일체 시를 짓지 않았다. 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다음 해 3월에는 백부가 죽고 제미년에는 평소 병약하던 2녀마저 죽어 3월에 장사를 지내었다. 6월에는 모친인 羅夫人이 타계하였다. ‘悲哀痛酷, 不復能爲文’의 아홉 글자가 작가의 비애를 응축해 보이고 있다.

[7] 居士昔嘗爲一家孀女作墓文. 女時見之曰, 「是尙得翁文爲不朽, 其死非不幸也.」 間又謂明仲, 「吾女子也. 恨無功德見於世. 無寧蚤死, 得吾父數行文, 以鐫墓石.」 今女旣死矣. 而吾不以時爲銘, 即一朝溘然, 父子之目俱不隕於土中矣. 遂忍痛泣書, 以掩諸幽. 嗚呼, 是誠讖耶, 其果得其幸願者耶.

어느날인가, 여자로 태어났을 바에야 부친의 묘지를 써받아 이름을 후대에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딸 아이가 농담처럼 한 말이, 이제 현실로 일어났다. 3녀의 ‘吾女子也. 恨無功德見於世’라는 말은 [2] 단락에서의 ‘是女性靜而拙, 雖識書, 無害也’라는 말과 [4] 단락의 ‘女士’라는 말과 호응하여, 재덕을 겸비한 여성이 조선 봉건사회에서 소외된 채 스러져 가야만 하였던 사실을 아프게 고발하고 있다.

[8] 銘曰, 「女子身, 儒士識. 生翳然, 死更惜. 命在天, 莫與力. 銘在我, 尙不勳.」

銘은 3녀의 ‘女士’로서의 덕을 찬미하고, 요절한 것을 애도하고 있다. 특히 ‘生翳然, 死更惜’은 많은 함축성을 지닌다. ‘翳然’은 본래 도연명의 ‘詠貧士詩’의 ‘仲蔚愛窮居 / 遶宅生蒿蓬 / 翳然絕交遊 / 賦詩頗能工’에서 끌어온 말로, 무분별하게 교유하지 않고 단아한 태도를 지녔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가난하였음을 뜻하기도 한다.

김창협과는 반대 당파인 남인에 속하는 李瀾도, 신도비명 6편(“星



湖集” 권 58), 묘표 7편, 묘갈명 60편(권 59~62), 묘지명 36편(권 63~5)의 비지류 문장을 남기고 있다. 그 가운데 ‘農圃子鄭公墓誌銘’(권 64)은 寒士인 鄭尙驥가 실용학을 추구하였던 모습을 그려내어 그로써 성호 자신의 학문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다. 묘지명의 序부분은 고인의 생몰, 가계, 志行의 일화 등을 간결히 서술하는 반면, 고인의 학문적 성취에 대하여는 세세하게 서술하였다.

其爲學，必以古人自期待，淹貫羣書，旁及百氏。中年以後，守靜不出門，纂著委積曰，「士雖窮而處下，意未嘗不在拯濟。」凡治民·治兵·山川·關防·財賦·城郭·車甲·器械·行陣，若下至醫藥·蠶績·耕農·日用之具，苟補於人，無不覃思成說，自號農圃子。又戒人曰，「稗乘鄙俚·術家惑亂文字，使人心易以外馳，不獨作之者不仁，觀亦不智矣。」

이 단락을 보면, 농포자의 의지를 서술하고 그 학문의 내용을 ‘治民’ 이하 13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다시 농포자가 남을 경계한 말을 들어 그의 학문의 내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이 묘지명의 銘은 韻字를 놓되 산문의 구법을 쓰고 있어 특이하다.

銘曰，「孰謂愼厚之少文。篋衍爛溢，莫如其多聞。孰謂意廣則忽微事。必窮兩繹，焉如幾靜默藏用。識之者在後，於我乎無咎。」

‘文’과 ‘聞’은 평성 文韻으로 압운하고, ‘事’(거성 實韻)와 ‘用’(거성 宋韻)은 隣韻은 아니지만 같은 거성운으로 通押, ‘後’와 ‘咎’는 상성 有韻으로 압운하였다. ‘愼厚之少文’은 사기 高祖紀의 ‘周勃重厚少文，然安劉氏者，必勃也’가 전고이고, ‘多聞’은 논어 爲政篇의 ‘多聞闕疑，愼言其餘，則寡尤’에서 따왔다. “근후한 사람이 문체를 구하지 않는다고 누가 비난할 것인가, 시문을 많이 짓기보다는 도를 탐구하는 것이 낫다.” ‘意廣則忽微事’는 후한서 孔融傳의 ‘融負其高氣，志在靖難而才疏，意廣迄無功’에서 따왔고, ‘靜默’은 管子 宙合篇의 ‘賢人之處亂世也，知道之不可行，則沈抑以辟罰，靜默以俸免’에서 따오고 있다. ‘藏用’은 주역 繫辭上의 ‘顯諸仁，藏諸用，鼓萬物，而不與聖人同憂’에서 따온 말이다. “의지가 크고 넓은 사람이 세세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여 누가 비난할 것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관철해 나가기 보다는 난세에 나서지 아니함이 낫다.” 이 명은 서의 부분에서 서술한 농포자

의 생애를 더욱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당쟁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출사하지 않고서 ‘多聞’에 힘쓰며 그러면서 救世의 뜻을 버리지 않은 농포자의 모습에, 이익은 스스로의 모습을 투영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지류는 고인의 생애를 간략히 서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작자 자신의 세계관, 인생관은 고인의 모습을 빌어서 언외에 드러나는 것이 보통으로, 관념의 덩어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가환의 ‘布衣鄭君墓誌銘’ (“탄만집”)을 보면 그러한 규범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1] 人有至行而無年者，其故莫解也。余以爲，至行者乃人之所以爲人之式也。天出以示人，使知其式，其收之或遲或速，約無定期，譬猶縣法於門，在曉民而已也。

이 묘지명의 眼은 ‘式’이다. 시경 大雅 下武에 ‘成王之孚，下土之式，永言孝思，孝思維則’이라 하였으니, ‘式’은 곧 ‘孚’를 가리킨다.

[2] 歲戊寅正月二十一日，其式出於嶺南丹城縣之丹溪。乙未三月十三日，收之於善山府之夢臺。纘改略于曆短矣。其爲式者，鄭姓，名箕東，字東野，東業世家也。父諱瀾，號滄海逸人，高·曾皆以偉人長德，爲世所慕服。君生有異質。性孝，先意響言，左右就養，知有父母而不知有身。於物無所好，惟好書若嗜慾。然嘗自以孝未盡職，書未盡讀爲恨。

臨絕，托其妻趙善事舅姑，以書殉葬。妻諾而踐之。

무인년(영조 34년)에 나서 을미년(영조 51년)에 죽었다면, 17세로 요절한 셈이다. 집안은 東業의 世家라 하여 양반 출신임을 밝혔다. 이가환은 이 포의의 짧은 생애를 ‘孝’와 ‘讀書’의 초점에 따라 서술하였다. ‘先意’는 예기 祭義의 ‘君子之所謂孝者，先意承志，諱父母於道’에서 따왔고, ‘響言’은 管子 明法解의 ‘下之從上也如響之應聲’과 의미상 통한다. ‘左右就養’은 예기 檀弓상의 ‘事親有隱無犯，左右就養無方’에서 취하였다.

[3] 銘曰，目一瞬而百念息矣，萬事已矣。君欲以婦爲子，以書爲糧，續成其志。傳曰「至誠無息」·先儒言「君子之心死而不已」者，君是也。噫，山徑人絕，林口欲昏，猶疑君之候父於門也。月苦風酸，木鳴鳥呼，或者君之夜讀啾啾邪。

이 銘도 이익의 예에서처럼, 韻字를 놓되 산문의 구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已’와 ‘志’는 거성 寔韻, ‘是’는 상성 紙韻으로, 거성 寔韻과 상성 紙韻을 通押하였다. ‘昏’과 ‘門’은 평성 元韻, ‘呼’와 ‘唔’는 평성 虞韻으로 압운하였다. ‘至誠無息’은 충용의 말이고, ‘君子之心死而不已’는 논어 泰伯篇의 ‘死而後已, 不亦遠乎’를 전고로 한다. 이 묘지명은 효의 경문을 지키면서 독서인으로서의 자궁을 잃지 않았던 士族의 생활양식을 간명하게 그려 보이고 있는 것이다.

### 5.

조선후기의 산문문체 가운데 수요가 많았던 것에 또한 傳狀類가 있다. 전장류 가운데 行狀, 諡狀 등은 追贈, 賜諡를 위해 故人의 前歷을 아주 세세하게 서술하여 읽기에도 따분한 것이 많다. 그러나 ‘傳’은 한 인물의 생애를 특정한 시점에서 재구성하는 데 힘써 그 재구성 방식이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가운데는, 허구를 배제한다는 고문의 특성을 벗어나 소설의 문체에 근접해 있는 것들도 있다. 이때, 과연 전에서 소설로 장르의 변이가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전의 서술방법에 소설의 문체가 수용되었는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제쳐놓고, 조선사회의 한 병폐였던 열녀 만들기 풍습과 관련한 烈女傳의 몇 작품을 살펴, 고문으로서의 傳狀類가 지니는 형식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당송 고문가들의 전에는 서민에 관한 것이 많은 데 비하여 명대의 전에는 節婦傳이 많아진다. 이것을 두고 고문의 퇴행이라느니, 유효성 상실이라느니, 문예론자들은 공론이 많을 수 있겠다. 그런데, 명대의 節婦傳 가운데 명문으로 꼽히는 것이, 왕세정의 의고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던 歸有光이 지은 ‘陶節婦傳’이다. 병든 남편에게 시집가서 겨우 맛보기 시작한 행복한 애정생활이 남편의 죽음으로 1년만에 막을 내린 뒤, 절망한 여인은 자살을 결심하나, 시부모에게 孝養을 다하고서야 순절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 절부는 난리 중에 남편을 잃고 자살하는 예나 재가를 강요 당하자 거부하고 자살하는 예와는 구별된다. 귀유광은 특히, 이 절부가 죽으려다가 마음을 고쳐 시모를 극진히 봉양하고서

시모가 죽는 날 평소의 결심을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귀유광의 ‘陶節婦傳’과 같은 소재를 다룬 것에 李用休의 ‘烈婦孺人韓氏傳’(“惠寰雜著”)이 있다. 申維翰은 이용휴의 전을 읽고, ‘우리나라 삼백년 예의의 풍교’가 이 열부에 나타나 있다고 감격하였다. 그가 영조 19년(1743)에 쓴 ‘書烈婦韓氏傳’(“靑泉集”)은 이용휴의 글을 넘어서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용휴의 ‘열녀유인한씨전’은, 韓德采의 외동딸이 17세에 蔡彭胤의 둘째 아들인 膺全에게 시집가서 두 해만에 남편이 죽자 순절의 뜻을 품되 몸을 훼손하지 않고 곡기를 끊다시피 한 끝에 20세로 죽은 일을 찬미한 글이다. 이 글의 초점은 ‘烈而孝’에 있으나, 작가는 ‘野史氏曰’ 이하의 논평에서 ‘烈而才’에 대하여도 조심스레 논하고 있다.

野史氏는 이렇게 말한다. 과부의 행실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개가 앓는 것이 節이고, 따라 죽는 것이 烈이다. 蔡氏婦는 곧 열녀라 할 것이다. 烈女에도, 목을 매거나 칼로 찢려 죽어 유체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다. 蔡氏婦는 그렇게 하지를 앓았으니 烈하고도 孝를 다한 셈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면 딸을 찾아가 처리하고는 하였는데 조리에 맞지 않는 법이 없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蔡氏婦는 烈하고도 才 있던 셈이 아닌가.”

한편, 신유한의 ‘서열부한씨전’은 蔡氏婦(韓氏)의 烈을 ‘禮義’의 초점에서 찬미하고 있는데, 다음에 그 글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1] 余讀三代已來國乘野史·巷俚所紀，閨媛之舍命而用義烈聞者，視丈夫爲盛。嘗論女子之性偏而峭，峭則善缺，偏則失中。其遇險難阨塞，傍無一卓錫可容趾，即水火金鐵，鳩毒雉經甘從，瞬息間得隕，若此類，何知禮義所由。殆與丈夫異矣。癸亥冬，在都下，得驪江李處士用休所著烈婦孺人韓氏傳讀之。始蹶然起坐歎息，言「我東三百年禮義之教，有此一婦人已矣。」

임진란 때 부녀의 순절자는 충신보다 몇 갑절 많았다. 하지만 극한

8) 野史氏曰，殘寡之行有二，守曰節，殉曰烈。蔡氏婦，蓋烈者也。烈有投繯剗刃，以毀其遺體者。蔡氏婦，其烈而孝者也。乃其父則言，家每有大事，必以訪孺人裁畫，亡不秩然中理也。然則蔡氏婦，又烈而才者邪。

상황에서 선뜻 죽음을 택하는 것은 장부의 죽음과는 다르며, ‘예의’에 맞는 행동이 아니라고 신유한은 전제한다. ‘예의’는 이 열부전의 眼點이다.

[2] 謹按本傳，韓故世族名家。孺人幼而淑，特有志操，事親以孝，視履端莊。婢屬敬長之，戒毋以非道見小姐。稍長，慧悟甚，家有事，大小疑難，詢之，片語裁決，亡不暫然中理。

여기서는 韓孺人이 名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예의를 알았다고 서술하여 孺人이 한계상황에서 분별을 잃을 여인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3] 十七，嫁爲希庵蔡學士子婦，明年生子。又明年未及歸，蔡生物於。

이 짧은 단락은 韓孺人이 결혼생활에서 얻은 행복감과 남편의 급작스런 죽음에서 받은 비통감을 함축해 보이고 있다. ‘明年生子’의 네 글자는 결혼생활의 행복을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4] 韓孺人日夜哭踊，勺飲不入口。旣葬而辭其父曰，「蔡氏母在也，而兒不能一日事之，何以稱蔡家婦。」即率郎主而往，致其哀敬於姑已。廼然骨立，亂髮被面，不向人言語。腋間有大腫自潰。人始見膿血透外，而勸之藥，則辭。其父每有書，遺以蔬鹽。開書訊安否外，屏去食物。姑以粥飲見強，謹受之。乍嘔乍嘔，餘或秘諸苦薦，反其空盂。

孺人이 殉死의 의지를 굳히면서도 시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음을, 이 단락은 대화문과 서술체로 드러내고 있다.

[5] 亡何，孤稚繼夭。孺人色不加戚曰，「吾何暇爾之慟耶。」蔡氏家知孺人萬無生意，告愍於其父。父至持孺人泣曰，「汝知吾命薄，十子而唯汝在。汝豈忍死。從我入京，覲汝疾，丐汝命可乎。」仰視曰，「幸爺無恙。兒是蔡家孀婦，又使兒歸而孝于孀耶。」泣弗聽。父亦泣，不可復強。

이 단락에서는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도, 외동딸로서 부친을 생각하는 마음도 이기고, 오로지 殉死를 결의하는 孺人의 ‘예의’를 부각시키고 있다.

[6] 病日飭，自知漸盡。起與姑訣曰，「以妾之夣殃而禍吾夫，豈敢一刻而忘吾死。有小刀隨身，一夜三引而三止者，毀吾膚吭，震驚吾姑，恨無以見亡夫地下。今而告訣，幸矣。但恨不得報姑氏思念。」又作書於其父。喉間作細音曰，「死好死好。」呼水澡手足，端坐而逝。身上只有龜布單衫襦。是初喪所服而寒暑不更云。

임종시에 孺人は 시부모와 부친에게 예를 다하였다. 죽을 때 몸에 걸친 것은 남편의 초상 이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그대로 입고 있던 홑옷이었다. 신유한은 단정하면서도 의지가 강한 여성상을 만들어 보인다.

이어서 신유한은 순절의 의의를 길게 논한 뒤, 韓孺人의 가계를 서술함으로써 글을 끝맺고 있다. 처음부터 신유한은 韓孺人이 명문가 출신이란 점을 밝히고 있고, 명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예의에 맞는 순절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앞서 든 귀유광의 절부전은 陶節婦의 신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陶節婦의 殉死가 오로지 애정 때문이었음을 부각시켰는데, 이 신유한의 烈女傳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 신유한이 韓孺人의 순절을 통하여 말하고자 한 것은 [7]의 절의론에서 드러나듯, 사대부로서 진정한 충의를 다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었다. 韓孺人의 순절은 그 때문에 더 더욱 예의의 이상에 맞는 행위로서 추상화되고 절대화된 것이다.

[7] 嗚呼，孺人亡年纔二十矣。藐而閨閣中一少婦，非有詩書禮學問講習之素，而凜乎其殉節之剛也，綽乎其處義之明也，藹乎其秉心之仁也，所以其言自合於聖經，其行必純於天理。嗚呼，是不亦千載一觀眞烈婦歟。夫以矢死之心，它不遲恤，而不愆不驚底慎于其姑，孝矣。求仁得仁，舍權從經，以報其父，賢矣。生而盡孝，死而盡誠，欲以藉手於地下，善之善矣。即使巖冠丈夫讀書事君，國家有難，其不魂於孺人之烈者，又誰耶。吾故曰，「國朝三百年禮義之教，有此一婦人已矣。」

집권 사대부에 대한 비판은 조선시대에는 곧잘 그들의 표면적인 충성심을 비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 인간 정육의 해방이라든가, 사적 개인의 형성과 같은 문제는 고문 문장 속에 직접 토로되는 일이 드물었다. 명문가 여성의 절의, 그것도 예의에 합당한 절의를 이상화하여 그려 보이는 일은 조선사회 속에서 오히려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신유한은 그러나 순절을 이상화하는 데 그치고, 열부를 만들어내는 사회 풍습의 문제를 바로 보지는 못하였다. 이에 비하여 朴趾源의 ‘烈女威陽朴氏傳’은 사대부의 열녀 만들기 풍습이 민간에까지 퍼진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이 열녀전은 작가의 열녀론, 고관댁 수절녀의 이야기, 박씨녀의 순절 이야기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생동감이 있는 것은 두번째 부분이다. 이 부분은 대화체를 쓰되 문답 방식과 발화문의 형식을 변환하여 주목되는데, 여기서는 助字의 사용과 散行正行의 운용을 살피기 위하여 한 대목만을 들어본다.

母垂淚曰, 「此汝母忍死符也. 十年手摸, 磨之盡矣. 大抵人之血氣, 根於陰陽, 情欲鍾於血氣. 思想生於幽獨, 傷悲因於思想. 寡婦者, 幽獨之處而傷悲之至也. 血氣有時而旺, 則寧或寡婦而無情哉. 殘燈吊影, 獨夜難晝, 若復驚雨淋鈴, 窓月流素, 一葉飄庭, 雙雁叫天, 遠鷄無響, 穉婢牢羶, 耿耿不寐, 訴誰苦衷. 吾出此錢而轉之, 遍模室中. 圓者善走, 遇域則止. 吾索而復轉. 夜常五六轉, 天亦曙矣. 十年之間, 歲減其數. 十年以後, 則或五夜一轉, 或十夜一轉. 血氣既衰, 而吾不復轉此錢矣. 然吾猶十襲而藏之者二十餘年, 所以不忘其功而時有所自警也.」

밑줄친 ‘殘燈吊影~訴誰苦衷’의 부분은 수절녀의 화법과는 명백히 다른 문체로 쓰여져 있다. 첫째, 연결사(之, 而 등)와 어말어기사(也 등)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둘째, 散行으로 내려오던 문체를 바꾸어 正行으로 쓰고 있다. 곧, ‘若復’를 괄호 안에 넣으면 4언의 齊行으로 연결되어 있다. 셋째로, ‘影·鈴·庭·響·衷’은 모두 [-ng]으로 끝나 압운의 효과를 낳고 있다. 이 부분은 수절녀의 발화문 속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수절녀의 심경을 강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작가가 개입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4자구 齊行의 리듬은 7자구인 ‘吾出此錢而轉之’에 의하여 깨어지고, 그런 뒤에도 [-ng]의 압운적 효과가 ‘中’자에 이어지는 듯하다가 호응하는 글자를 잃고 있다. 이것은 동전을 굴리는 반복행위가 중단되면서 수절녀가 문득 본래의 의식을 되찾는 것과 일치한다. 그 다음은 4자구와 5자구를 연결사로 이은 문구를 주종복합문으로 다시 이으면서 논리적인 글을 만들어, 의지와 강인함을 상징해 보이고 있다.

## 7.

이제까지 조선후기의 序跋類, 碑誌類, 傳狀類(烈女傳)의 몇몇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고문의 형식미가 음조에 대한 고려와 서술 대상의 초점 부각을 통해 실현되는 방식을 살펴 보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조선후기의 고문은 고착된 장르가 아니라 상승하는 장르이며, 고문의 개념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다. 또한 각 문체가 지니는 일정한 특성과 개별 작품이 구체화하고 있는 문체 사이에는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사실 고문가들은 끊임없이 형식 실험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문의 형식미가 위의 두가지 면에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작품의 형식은 고정된 틀에 따라 분석될 수 없다. 그 두가지 요건은 고문 형식을 성립시키는 충분조건일 수가 없는 것이다.

문체와 사상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도 개연적인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동일 그룹에 속한 사상가나 학자가 문체 선택을 달리하는 예는 중국문학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민중적 기반 위에 근대적 사유를 개진한 좌파—왕학 사상가 가운데도 고문의 문체에 집착한 예가 있는가 하면, 근대적인 분석—귀납적 사고를 존중한 청대 고증학의 일부 학자 가운데는 고문보다도 駢儷文을 즐겨 사용한 예가 있다.

본고는 문체와 사상 및 학파와의 관련을 논하기 이전에 고문 문체를 분석하는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작가의 고문론과 실제 작품의 형식 및 문학성을 논하는 작업은 崔岌에 관한 줄고 이후 과제로 삼아오고 있다.